

# 韓式 木造建築時代に 使用된 建築道具 및 器械

趙勝元 · 趙英武

(株) 空間研究所

## 1. 序 論

과거 韓式 木造建物時代に, 大木手를 비롯한 建築百工이 건물제작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建築道具들과 器械들은 어떠하였을까? 그들은 제각기 자기 職種에 필요한 道具들과 器械들을 자작으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각 工匠의 技藝의 水準을 그가 사용하는 도구들과 기계를 만들어 사용하는 습씨를 보아 평가하였다 고도 한다.

그러나 이 建築道具들과 器械들의 체계있는 전모는 고증되어진 적이 한번도 없다. 더우기 외국의 기능공들이 1900年 前後에 많이 들어와 일하면서 부터 과거의 건축도구와 기계의 제조 및 이용에도 점차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었다. 흔히 도구와 기계는 건축 제작에 사용하다가 소모되면 버리고 새 것과 바꾸기 일췌였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옛것이 체계있게 보존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가지 건축도구들과 기계들의 명칭과 圖解는 고고학적으로 고증된 것이 아니라, 1920年 초 이후부터 본인(趙勝元)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들을 중심으로하여 회고해서 설명한 것임을 특기한다. 그러니까 도구와 기계 하나 하나를 고증하여 분류, 설명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소개한 건축도구들과 기계들의 圖解 그림들은 모두 中版 8 枚에 그렸던 것인데, 이것들은 지난 1980年 12 月 4 일부터 경북궁 안 民俗博物館이 기획한 木工藝道具展에 전시되었었다. 이 建築道具展에 전시된 도구들은 주로 小木作이나 細工品制作에 사용하였던 것이 많은 것 같았다.

## 2. 약간의 考證

과거의 建築道具들이 비교적 폭넓게 圖說된 文獻들 중의 하나로 華城城役儀軌 卷三 圖說篇을 들 수 있다. 독자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器械들과 道具들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擧重器, 輓轆, 大車, 平車, 發車, 童車, 雪馬(설매), 駒馬, 石杵(돌달구), 木杵(나무달구), 千金鐵(지렛대), 木柄鐵椎(막쇠매), 釘(자루정), 鐵紉(쇠사슬띠), 支架(지게), 犁鐵(보습), 畚(삼태기), 擔機(들것), 單機, 擔桶(목도통), 汲縵(두레박), 龍貫子, 木長本(장군)杵(나무가래), 廣鋸

(곡괭이), 尖鋸(괭이), 鑿(쇠가래) 錘(삼) 등

노 卷五 財用篇에서, 이밖에 다음 명칭들이 수록되어 있다: 衛車, 別平車, 散輪車, 午駕木, 浮槓木, 來往板, 擔機木, 支乃木, 達歐木, 木加乃, 加乃丈夫, 杵, 水桶, 大加乃, 加乃, 錘子, 斧子, 鐵沙瑟, 水鐵夢同 등. 또 수레를 끄는 動力으로서 소, 말이 동원되었다.

흔히 알려진 또 하나는 儲承殿儀軌란 文獻이다.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名件들 및 道具들의 名稱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大鉅, 中鉅, 方輻芟鋸, 芟釘(돌정), 辺子釘, 馬串釘, 立釘, 斧子(도끼), 小刀子, 錐子, 中蒙同伊, 小蒙同伊, 衡鏢伊, 鏢伊, 非莫首金, 穴金, 加莫金, 大排地乃, 中排地乃, 小排地乃, 刃加乃, 角耳, 鉅刃, 雙絲刃, 代牌刃, 腦箭刃, 曲乃刃, 目只刃, 比湯刃, 辺湯刃, 介湯刃, 未里刃, 非倍背刃, 小刃, 曲刃, 小錯, 小時郎, 曲錘, 同串, 雜破鐵, 加致金手……등이다.

거기에서 우리의 고유한 명칭들의 발음을 漢字로表記한 例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약간 신경을 쓰면 대강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例로 달구의 경우, 卷三圖說篇에서는 돌달구 石杵, 나무달구 木杵라고表記하고, 卷五財用篇에서는 달구나무 達歐木이라고表記한 것과 같은 例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하나를 여러가지로表記 또는 表音한다고 해도, 그 内容이나 事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무관할 것이다.

## 3. 필기도구들

필기도구들로서 草筆, 墨筆, 墨刃筆, 硯石, 黃筆, 雜筆, 畫筆이 사용되었다.

①- 초필은 설계도면이나 華文을 그리는 작은 붓이다.

②- 먹통은 먹줄을 치는 도구이다. 먹통은 소나무 광술옹이나 괴목의 뿌리로 만들었는데, 먹통들은 각자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을 제각기 다르게 만들었다. 먹통은 수직을 측정하는 평줄을 겸하였기 때문에 먹통 중심에 평줄을 매어 다는 고리구멍이 있는 것이 이상적이고, 또 한손으로 들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좋다. 먹통 고리구멍 앞과 뒤에 각각 구



㉕-소쿠리는 싸릿대나 참대회초리로 엮어 짜서 만들며, 윗쪽으로 아구리가 터 있고, 자질구레한 물건을 담아 나른다. 새롱, 먹서리, 둥구미, 섬은 바꾸니와 비슷하다.

㉖-삼태기는 싸릿대나 참대회초리로 엮어 짜서 만들며, 윗쪽과 앞쪽으로 아구리가 터 있고, 흙, 모래, 석회를 걸어 담아 나른다.

㉗-망태기는 삼실로 바꾸니 모양으로 그물로 짜서 만든 구렁이며, 연장이나 잔 물건을 담아 어깨에 메고 나른다.

㉘-지게(支械)는 「卜」자형의 두 지게다리를 고정시킨 등받이에 등태와 벨방을 달아, 두 지게다리 위에 물건을 싣고,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르는 운반도구이다. 지게는 노루발 작대기로 고여 세운다.

㉙-들것(擔機)은 두 장대를 가장자리에 끼워 맨가마나 밧줄그물 위에 물건을 싣고, 두 서너 사람이, 두 장대를 잡아들고 운반하는 도구이다.

㉚-단기(單機)는 두 장대에 밧줄로 묶어 매단 두터운 木版 위에 물건을 싣고, 두 서너 사람이 두 장대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운반도구이다.

㉛-목도는 무거운 물건을 감아 맨 밧줄에 굵은 몽둥이를 끼워, 두 서너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르는 도구이다. 긴 물건은 앞뒤에 각각 목도를 한다.

㉜-끝개(駒板)는 「ㄷ」字形으로 만든 두터운 판틀 앞에 밧줄로 꿰어 매고, 무거운 물건을 싣고, 굴림대위를 굴러 나르는 운반도구이다.

㉝-설매(雪馬)는 양쪽 骨板이 뱃바닥 모양으로 된 짐틀 앞에 밧줄을 꿰어 매고, 무거운 물건을 싣고, 눈길이나 산비탈길을 미끌어 당겨 나르는 운반도구이다.

㉞-반구(搬具)는 바퀴가 없는 수레틀이며, 물건을 싣고, 소나 말이 끌어서 나르는 운반도구이다.

㉟-거지게는 소의 등에 엮고, 물건을 싣어서 나르는 짐안장이다.

㊱-동차는 네 판바퀴가 달린 짐틀수레이며, 두 서너 사람이 밧줄로 끄는 작은 수레이다.

㊲-발차는 두 판바퀴가 달린 작은 짐틀수레이며, 사람이나 소가 끈다.

㊳-달구지(牛車)는 두 바퀴가 달린 짐틀수레이며, 소가 끈다. 짐틀의 크기와 바퀴의 모양에 따라서 大車와 卍車로 나누인다. 평차는 대차에 비하여 바퀴가 작다. 바퀴는 박달나무로 만든다.

방갓배, 거룻배는 바닷길이나 물길을 노를 젓거나 샷대질하여 물건을 나르는 운송선이다. 배 밀창이 얇고 평평하다. 돛대에 돛을 단 돛배도 있다.

## 8. 기중기계들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올리는 기계로서 擧重器, 輓轆, 挽械와 梢台가 있었다.

㉜-거중기는 滑輪장치를 한 기중기이며, 높이에 따라서 脚柱틀에 경사진 좌우 纜車를 조립하여, 무거운 짐을 잡아 맨 밧줄을 감아 올린다. 華城城役儀軌에 의하면, 脚柱높이 14척, 30인의 인력으로 12,000근짜리 물건을 들어 올렸다고 한다. 활륜장치는 각주에 가로 짚 상·중·하의 橫梁에 매어 달았다.

㉝-녹로는 커다란 받침틀 한 끝에 높은 雙竿을 고정하여 滑輪장치를 한 기중기이다.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받침틀의 높이 15척, 雙竿의 높이 각각 35척, 쌍간에 가로 짚 橫梁에 滑輪장치를 매어 달았다.

㉞-밧줄은 삼베나무 어작위의 껍질을 꼬아 만든 새끼 3~6가닥을 다시 꼬아 만든다.

㉟-솟대(梢台)는 높은 네 脚柱틀에다가 滑輪장치를 매어 단 廻轉竿을 가설한 기중기인데, 밧줄은 만계로 감아 당긴다. 만계는 밧줄을 감아 당기는 回轉軸 장치이다. 여러 사람이 回轉心棒을 돌린다. 60尺높이 솟대를 가설하여 직접 사용한 적이 있다.

## 9. 가설도구들

작업용 가설틀로서 목마, 사다리, 안공, 톱질틀, 대패질틀, 칭평틀이 있었고, 가설장치로서 비계다리, 헛간을 조립하였다.

㉜-목마(木馬)는 네 脚柱틀 위에 디딤판을 고여 놓고, 디딤판 위에서 일하는 작업틀이다.

㉝-사다리(梯機)는 높은 곳을 오르내리려고 긴 두 脚柱 사이에 디딤대를 가로 박은 계단용 가설틀이다.

㉞-안공(案拱)은 원목을 기대놓고 자귀질을 하는 까치다리의 고임틀이다.

㉟-톱질틀(鋸機)은 원목을 기대놓고 인거톱질을 하는 고임틀이며, 그 규모가 커진다.

㊱-대패질틀(鉋機)은 재목을 대패질하기 위하여 긴 수평널을 고인 작업틀이다.

㊲-칭평틀(秤平機)은 선자연들을 치목하는 틀이다. 칭평틀은 사전에 미리 초맥이 평교대와 재맥이 평교대를 정확하게 가설한 틀로서, 건물 네 귀에 포연할 선자연들의 길이, 힘, 생출(生出), 생기(生起) 등에 맞추어 차례로 치목하는 가설틀이다. 선자연의 번호는 귀추너 양편에 붙이는 합장선자연으로부터 매겨지기 시작한다.

㊳-비계다리(浮械, 浮橋)는 높은 곳으로 재료를 운반하는 경사디딤판과 높은 곳에서 오가며 일하는 수평디딤판을 건물주변에 가설한 틀이다. 길고 둥근 나무로 짰다.

㊴-헛간(虛間)은 임시창고와 임시숙소의 가설물, 또는 시공할 건물 자체를 비, 바람, 눈, 서리로부터 보호하려고 사방을 노단으로 가리고, 지붕을 이엉이나 노단으로 덮어 버리는 비계헛간이다. 길고 둥근 나무를 꺾쇠, 못, 새끼로 매어 조립한다.

## 10. 땅을 파고 다지는 도구들

땅을 파는 도구들로서 곡괭이, 삽, 가래가 있었고, 기초의 전물(填物)은 달구로서 다졌다.

⑤1-곡괭이(谷角耳, 廣鏃)는 긴 나무자루에 한쪽은 정과 같이 뾰족하고 또 한쪽은 구부러진 쇠붙이를 꽂아, 두손으로 휘둘러쳐서 단단한 땅을 파헤치는 도구이다.

⑤2-삽(鏞)은 긴 나무자루에 넓적한 네모진 쇠붙이를 꽂아, 땅속에 밀어 넣어 흙을 퍼올리는 도구이다. 삽자루는 장대 또는 손잡이가 달린 것이었다.

⑤3-가래(杓)는 두 가닥의 받줄을 맨 긴 나뭇자루에 네모진 넓적한 삽날을 꽂아, 한 사람이 자루를 조작하고 또 두 사람이 받줄을 잡아당겨 흙을 퍼올리는 도구이다. 세 사람이 한패가 된 것을 가랫꾼이라 한다. 丁자형의 나무자루 끝에 쇠붙이를 꽂은 것을 나무가래(杓), 긴 자루끝에 삽보다 넓적한 쇠붙이를 꽂은 것을 쇠가래(鏞)라고 구분한다.

⑤4-나무달구(木杵)는 직경 1척 이상에 길이 3척 이상되는 나무통의 가는 허리에 여러 가닥의 받줄을 매고, 여러 사람이 제각기 받줄을 잡고 일제히 잡아당겨 올렸다가 내리쳐서 기초면과 전물을 다지는 도구이다. 돌달구(石杵)는 나무통 대신에 절구통 같은 돌덩이의 가는 허리에 여러 가닥의 받줄을 맨 것이다.

## 11. 조석도구들

造石도구들로서 정, 썰기, 쇠메, 먹쇠메, 쇠망치, 도두락망치, 방망이, 지렛대를 사용하였다.

정(錠)은 끝이 뾰족한 쇠몽둥이이며, 쇠메, 쇠망치, 방망이로 정머리를 둘러쳐서 돌을 쪼개고, 쪼고, 파고, 다듬는 도구이다. 나무자루나 쇠줄자루가 달린 것을 자루정이라고 한다. 정머리는 평면이다. 정에는 썰기정, 쪼는 정, 칼날이 선 정, 장도리 정, 조각정 등 여러가지가 있다.

⑤5-썰기정(剖錠)은 나무썰기 모양의 납작한 쇠몽둥이정이며, 돌의 결을 좇아 여러 개의 썰기정을 박아 쪼갬다. 썰기는 원추체나 각추체 모양의 짧은 쇠몽둥이이며, 썰기날은 직선형인 것도 있다.

⑤6-쪼는 정(琢錠)은 끝을 뾰족하게 날을 세운 정이며, 쇠망치나 방망이로 정머리를 둘러쳐서 돌의 모서리와 표면을 쪼아 다듬는다.

⑤7-칼날 정(刃錠)은 직선형의 칼날을 세운 정이며, 쇠망치나 방망이로 정머리를 둘러쳐서 돌을 卍正하게 다듬는 정이다.

⑤8-장도리정(錠錠)은 손자루에 장도리 모양의 정을 꽂아, 돌의 표면을 쪼아 다듬는 정이다.

⑤9-조각정은 숫돌로 정날을 뾰족하게 갈아 세우고, 돌을 조각하고 화문을 새기는 정이다.

⑥0 쇠메(鐵錘)는 대장장이의 쇠메와 같고, 크기가 여러가지이다.

⑥1-먹쇠메(錘椎)는 긴 나무자루에 두터운 원판 모양의 쇠메를 꽂은 메이다.

⑥2-쇠망치는 한쪽 머리가 뾰족하고 또 한쪽 머리가 평면인 쇠붙이를 꽂아, 정머리, 끌머리, 못대가리를 둘러치는 도구이다. 못을 박고 또 못을 뽑아내는 것을 못뽑이장도리라고 한다.

⑥3-도두락망치는 넓적하고 평면인 쇠붙이의 양쪽 머리에 곰보날을 세운 망치이며, 돌의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는 망치이다. 곰보날의 모양은 格子 또는 菱形으로 배열된다.

⑥4-방망이는 장고 모양의 작은 나무통에 손잡이를 꽂아, 한 손으로 정머리를 둘러쳐 돌의 표면을 꼼꼼하게 다듬는데 사용한다. 小大作에서도 끌머리를 방망이로 쳐서 치목하거나 접합부를 조립한다.

⑥5-지렛대(剽劍, 千金鐵)는 한쪽 끝이 직선날이고 또 한쪽 끝이 노루발모양으로 된 길고 단단한 쇠몽둥이이며, 고임돌을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옮기고 또 대못을 뽑아 낸다.

## 12. 못을 박고 조립하는 도구들

나무의 접합부를 짜맞추는 도구들로서 메, 방망이가 있었고, 못을 박는 도구로서 쇠망치, 장도리를 사용하였다.

메는 쇠메와 목메가 있다.

⑥6-쇠메는 긴 나무자루에 커다란 평면머리의 쇠덩어리를 꽂아, 두손으로 휘둘러쳐서 대못을 박는다. 크기는 대형, 중형, 소형이 있다.

⑥7-목메는 긴 나무자루에 커다란 평면머리의 나무통을 꽂아 나무의 접합부를 때려 맞춘다. 목메는 떡메와 같고, 나무통의 둘레에 쇠띠를 감기도 한다. 대형, 소형이 있다. 소형메라도 방망이보다 크다.

⑥8-장도리는 한쪽 머리가 못을 박는 평면머리이고 또 한쪽 머리가 노루발 모양이 못뽑이로 된 쇠붙이를 손자루에 꽂아, 못을 박거나 뽑아 낸다. 못뽑이 대신에 못대가리를 깊이 박기 위하여 뾰족하게 만든 장도리도 있다.

## 13. 나무를 깎아 다듬는 도구들.

나무를 깎아 다듬는 도구들로서 도끼, 낫, 훤이칼, 굵기칼, 자귀, 까귀를 사용하였다.

⑥9-도끼(斧)는 부리가 크고 직선형의 날이 선 쇠덩어리를 나무자루에 꽂아, 두손으로 휘둘러쳐서 벌목하고 가지를 쳐내는 도구이다. 도끼의 크기와 도끼날은 크고 작은 여러가지 모양이 있다.

⑦0-낫(鎌)은 「ㄱ」자형으로 구부러진 안쪽에 칼날을 세운 쇠붙이를 손잡이에 꽂아, 한손으로 쳐서 나

못가지를 쳐내고, 껍질을 훑어내는 일종의 칼이다.

⑦①-훑이칼(削刀)은 초생달 모양의 둥근 안쪽에 칼날은 세우고, 양쪽 고리 속에 손잡이를 꽂아, 두 손잡이를 잡아당겨 나무껍질을 훑어내거나 원목을 둥글게 훑어 깎는 半月刀이다.

⑦②-긁기칼(刷刀)은 작고 꼬부라진 칼날 한쪽 끝에 손자루를 꽂아, 대패질 할 수 없는 웅이나 흠터를 긁어 깎아 내는 曲刀이다. 긁기칼보다 더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을 厥刀라고 한다. 긁기칼의 칼날은 크기와 모양이 여러가지다.

⑦③-자귀(鉋)는 나무자루에 뿌리가 크고 무거운 직선형의 쇠날을 꽂아, 두손으로 둘러쳐 나무의 曲面과 稜面을 깎아 다듬는 도구이다. 도끼날은 자루와 같은 방향이지만, 자귀날은 손자루와 직각 방향으로 꽂힌다. 자귀는 대자귀와 손자귀 그리고 끌자귀가 있다.

⑦④-대자귀는 나무자귀(木鉋)와 쇠자귀(鉋)가 있다. 나무자귀는 丁字形의 자귀자루틀에 자귀날을 꽂은 것이고, 쇠자귀는 긴 자루에 한쪽은 부리가 크고 또 한쪽은 자귀날이 선 쇠붙이를 꽂은 것이다.

⑦⑤-손자귀(手鉋)는 손자루에 작은 자귀날을 꽂은 것이다.

⑦⑥-끌자귀(鑿鉋)는 끌날과 같이 좁고 긴 자귀날을 손자루에 꽂아, 나무를 깊이 파내는 자귀이다. 끌자귀는 나막신을 깎아 파내는 것과 같고, 나무를 조각하고, 화문을 새긴다.

⑦⑦-까귀는 한쪽 머리가 쇠망치로 쓰이는 자귀이다. 양쪽 머리가 모두 구부러진 자귀날이 선 것을 용까귀라고 한다.

#### 14. 나무를 자르는 도구들

나무를 잘라내거나 켜는 도구들로서 斷鋸와 引鋸가 있다. ⑦⑧ 단거톱은 나무통을 자르는 톱이고, ⑦⑨ 인거톱은 나무결에 따라 널을 켜내는 톱이다. 단거톱날은 45°각도로 날을 세운 것들을 두줄로 어긋나게 교차시킨 것이고, 인거톱날은 70° 각도로 세운 톱날을 서로 어긋나게 교차시킨 것이다. 톱틀은 톱날의 크기와 길이에 따라서 제각기 달라지는데, 주로 「工」字形으로 조립한 톱틀 한쪽에 톱날을 끼우고, 또 한쪽에는 사람의 머리털을 꼬아 만든 탕계줄을 비너못으로 틀어서 톱날을 팽팽하게 고정시키는 틀이다. 톱의 종류들은 크게 나누어서 단거와 인거로 구별되고, 그리고 제각기 대, 중, 소, 細形의 네 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대목들은 이 여덟가지 톱들을 자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 20세기 초에는 기계톱이 없었으므로, 대형과 중형의 톱은 두 사람이 서로 밀어당겨서 나무를 자르거나 켜었고, 소형과 細形의 톱들은 한 사람이 두손 또는 한손으로 밀어당겨 사용하였다. 톱날이 길어서 톱틀에 끼워 사용 할 수 없는 無梁톱은

양쪽에 손자루만을 꽂아 사용하게 된다. 그밖에 칼톱, 잔톱, 꼬리톱, 손톱 등이 있다.

⑦⑩-칼톱(刃鋸)은 송곳같은 칼날 등에 톱니날을 세워, 널판 구멍을 톱질하는 引鋸, 斷鋸 겸용이다.

⑧①-잔톱(細鋸)은 小木作에서 창문의 울개미와 살대를 켜는 細引鋸, 잔 나무통이나 이음새를 자르는 細斷鋸가 있는데, 작은 손톱틀에 꽂아 사용한다.

⑧②-꼬리톱(尾引鋸)은 톱날의 모양이 칼톱과 같은 것인데 톱날의 길이가 길고 폭이 좁아서 곡선으로 나무를 켤 때 사용된다. 과도형의 연합을 켜거나, 화반과 단운공의 원호형을 켤 때 사용된다. 꼬리톱으로 켜 다음에 깎기로 다듬게 된다.

⑧③-손톱(手斷鋸)은 小斷鋸의 크기와 같고, 작은 손톱틀에 꽂아, 大木作에 있어서, 안방, 서까래를 자르는 小斷鋸 톱이다.

#### 15. 나무를 밀어 깎는 도구들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밀어 깎는 도구들로서 대패, 줄미리, 치목긋기, 탕을 사용하였다.

대패(鉋)는 대패집 아구리 속에 대패날을 끼워 고정하고 손으로 밀어당겨 나무 표면을 깎는 도구이다. 대패집은 단단한 무프레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며, 대패날의 모양에 따라서 밀바탕을 만든다. 평대패날이면 밀바탕을 평면으로, 뒤집이대패날이면 뺏바닥 모양의 反曲面, 둥근대패날이면 丸面이 된다. 대패날의 모양에 따라서 평대패(平鉋), 뒤집이대패(反鉋), 둥근대패(丸鉋) 등으로 구별하고 각각 대형, 중형, 소형이 있고, 또 대패질의 차례에 따라 초대패질 하는 초대패틀(初鉋), 재대패질하는 재대패틀(再鉋), 잔대패질하는 잔대패틀(細鉋)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점점 대패집의 아구리가 작아진다.

⑧④-평대패는 나무의 표면을 평정하게 밀어 깎는 대패이다.

⑧⑤-뒤집이대패는 나무의 표면을 우묵하게 휘어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를 뒤집이하여 밀어 깎는 대패이다.

⑧⑥-둥근대패는 나무의 표면이 둥글게 돌아진 곳이나 우묵하게 들어간 곳을 밀어 깎는 대패이다.

⑧⑦-초대패는 대패집의 아구리가 커서 대패밥이 잘 빠져나가며, 초대패틀 앞뒤에 손잡이가 달려 두 사람이 서로 밀어 당긴다.

⑧⑧-재대패는 초대패질 한 나무 표면에 돌아난 웅이나 결을 밀어 깎으며, 아구리가 약간 작아진다.

⑧⑨-잔대패는 초대패질이나 잔대패질 한 나무 표면을 곱게 밀어 깎아 마무리하는 대패이다. 잔대패날은 가늘고 날카롭다. 小木作에서 주로 사용된다. 大木作에서는 재대패질로 마무리 하기도 한다.

⑧⑩-줄미리(絲鉋)는 나무 표면에 여러가지 줄모양을 밀어 깎는 대패의 일종이다. 이것을 사미리라고한

다. 출대패날은 單絲, 雙絲, 單弧絲, 雙弧絲, 丸絲, 橢圓絲, 丸溝絲, 平溝絲 등으로 밀어 깎는 여러가지가 있고, 출대패집 밀바탕도 이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기둥의 사면과 모서리, 창문의 올개미와 살대, 난간, 회란 같은 곳에 출대패질을 한다.

⑨⑩-치목긋기칼은 긋기틀의 한 측면에 적당한 간격으로 가감하여 칼날을 꽂아 고정하여, 긴 나무 표면에 평행선을 긋는 도구이다. 사미리질이나 탕질을 하려면 미리 치목긋기칼로 칼출을 긋는다.

⑨①-탕(錫)湯은 나무의 모서리나 표면에 깊은 골을 밀어 깎는 대패의 일종이다. 탕에는 나무 모서리를 턱지게 깊이 깎는 변탕(邊湯), 나무 표면에 깊은 줄골을 밀어 깎는 개탕(介湯), 쌍줄골을 밀어 깎는 비탕(比湯)이 있다. 탕날은 탕집 아구리에 끼워 고정하지만, 탕집 밀바탕은 용도에 맞추어야 한다. 탕날은, 좁고, 탕집은 길다. 탕집은 박달나무로 만들되 무거워야 한다.

## 16. 나무에 구멍을 파는 도구들

나무에 구멍을 파내는 도구들로서 송곳, 끌을 사용하였다.

송곳(錐)은 손잡이에 뾰족한 송곳날을 꽂아, 손바닥으로 비벼 돌려 나무에 구멍을 뚫는 도구이다. 송곳에는 비뚫, 도래송곳, 활비비송곳이 있다.

⑨②-비뚫은 길고 굽은 송곳날의 한쪽 끝 고리에 손잡이를 꽂아, 두손으로 손잡이를 돌려 구멍을 뚫는 송곳이다.

⑨③-도래송곳은 나선줄로 날을 세운 송곳날의 한쪽 끝 고리에 손잡이를 꽂는 송곳이다. 비너뚫구멍, 대뚫구멍을 뚫는다.

⑨④-활비비송곳은 활 모양의 송곳틀에 긴 송곳을 고정시켜 활대틀을 틀어 나무 구멍을 뚫는 송곳이다.

⑨⑤-끌(鑿)은 좁고 날카로운 끌칼을 손잡이에 꽂아, 쇠망치나 방망이로 손잡이 머리를 내려쳐 길고 큰 구멍을 파내는 도구이다. 끌칼은 용도에 따라서 폭이 좁고 약간 넓은 것, 또 칼날이 직선형이나 곡선 형으로 된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맞춤구멍, 이음구멍을 파는다. 여러 나무를 똑같이 끌질하려면 도집계(都執械)로 한꺼번에 꼭 포개다. 꺾쇠로 포개놓기도 한다.

⑨⑥-도집계는 여러 개의 나무를 두 널판이나 떠쇠로 포개놓고 고정하는 큰 집계이다.

## 17. 나무를 조각하는 도구들

나무를 조각하는 도구들로서 칼, 끌, 까귀가 사용된다. 칼은 용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크기와 모양이 있다.

⑨⑦-조각칼은 목혜장, 안자장, 조각장이 나무를 조각하고, 화문을 새기고, 액자나 글자를 새기는 칼이

다. 彫作에 사용된다.

## 18. 쇠날을 가는 도구들

여러가지 연장의 쇠날을 가는 도구들로서 출칼, 솥돌이 있다.

⑨⑧-출칼은 강철판 양면에 각종 무늬의 날카로운 곰보날을 세운 것이며, 칼날을 갈아 세운다. 톱출칼은 가늘고 작다.

⑨⑨-솥돌은 솥돌틀에 고정시켜 놓고, 칼날을 물갈기 하는데 사용된다. 솥돌은 거친것, 가는 것, 매끄러운 것을 차례로 사용한다.

## 19. 미장도구들

미장도구들로서 흙주걱, 흙반이, 흙손, 호미, 팽이, 쇠스랑, 갈퀴, 작도, 채를 사용하였다.

⑩⑩-흙주걱은 긴 나무자루에 길쭉한 판주걱을 달아, 반죽한 화물을 퍼서 높이 떠주는 주걱이다.

⑩①-흙반이는 네모난 판대기 밑에 손잡이를 달아, 한손으로 화물을 받아드는 도구이다.

⑩②-흙손은 화물을 찍어 바르는 도구이다. 대개 미장 초벌은 맛벽질 쳐바르기가 되고, 재벌을 한 다음에 곱게 마무리질 한다.

⑩③-호미는 손자루에 세모난 호미날을 꽂아, 흙을 고르고 긁어 모은다. 호미날은 지방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⑩④-쇠시랑(小時郎)은 긴 자루에 구부러진 연두창을 묶어, 흙이나 지푸라기를 고르고 긁어 모은다. 갈퀴와 비슷하다.

⑩⑤-작도(斫刀)는 넓적하고 큰 칼날을 작도틀에 고무쇠로 박아 놓고, 작도 칼날에 맨 밧줄로 잡아 올린 다음에 발바닥으로 작도칼날을 눌러 질단을 써는 도구이다. 맛벽질하는 흙에는 지푸라기, 보리수염을 잘게 썰어 반죽하고, 마무리 회분 반죽에는 잔 해면솜을 섞어 반죽한다.

⑩⑥-채는 채틀 밑에 채그물을 달아, 미장용 흙, 모래, 석회, 탄가루의 크기를 알맞게 걸러낸다. 채틀을 흔들거나, 까치다리틀에 매달아 놓고 걸르기도 한다.

## 20. 기와잇기 도구들

기와를 잇는 도구들로서 기와칼, 고무레가 있다.

⑩⑦-기와칼(瓦刀)은 부리가 넓적하고 두툼한 칼이며, 기와장을 쪼개고, 扶土를 고르고, 와구토에 화물을 쳐바르는 도구이다.

⑩⑧-고무레는 나무자루에 梯形의 나무판을 꽂아, 扶土를 물매잡아 깔아 다진다. 자루가 작은 것이 섯고무레이다.

그밖에 살포, 흙주걱, 흙반이, 흙손이 사용된다.

21. 도배도구들

도배하는 도구들로서 도배칼, 가위, 도전판, 풀솔이 사용되었다.

⑩-도배칼(剪刀)은 도배지를 자르는 칼이다. 칼날이 길다.

⑪-도배가위(鉞)는 보통 가위와 같으며, 도배지를

자른다.

⑫-도전판(刀剪板)은 고리가 달린 두 판대기이며, 도배지들을 가지런히 포개 눌러 놓고 한꺼번에 칼질하는데 쓰인다.

⑬-풀솔은 돼지털을 빗자루 같이 갑풀로 묶쳐 손자루에 달고, 풀을 문혀 도배지에 바르는 솔이다.









